

高麗時代 文集에 나타난 兒童養育 考察(I)

Childrearing in the Collection of Works during the Koryo Dynasty Period(I)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 愼 良 宰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ang Jai, Shin

本 研究는 韓國傳統社會의 兒童養育을 알아 보기 위해 高麗時代의 文集인 破閑集·東國李相國集·補閑集을 문헌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高麗時代의 兒童에 대한 認識特徵으로는 아동의 素質이나 品性은 先天的으로 타고 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아동의 知的 側面에 대한 期待가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高麗時代 兒童은 家內課業을 통하여 成人生活로 자연스럽게 社會化될 뿐만 아니라, 行動模倣·自然物 親和·道具製作 등의 活動特性을 지닌 놀이 생활을 하였다. 셋째, 高麗時代에 父性은 兒童의 物理的 保護뿐만 아니라 心理的 側面에서의 養育活動을 수행하였고, 한편으로 母性에게는 嬰兒 養育에 있어 必然的 關係가 강조되었으며, 또한 당시 社會에는 강한 養育責任意識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文集을 통하여 당시 兒童의 衣食住生活, 出生儀禮, 家庭教育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이 발견되었다.

I. 序 論

1. 問題提起

兒童養育의 過程은 아동발달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信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Sigel, 1985; Goodnow, 1985, 1988a). 이 信念이라는 용어는 實在에 대한 概念化로서(Miller, 1988), 부모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아동발달에 관한 신념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아동에게 나타내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신념은 종종 民間傳承 樣式으로 이어진다고 한다(Goodnow, 1982). 이러한 점은 부모 신념 형성의 요인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신념은 모성과 부성경험의 차이, 자녀수나 양육 경험유무 등과 같은 개인 경험에 따른 차이보다는 文化間 相異性에 의한 차이가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Goodnow, 1988b). 이러한 결과는 아동양육에 관한 신념체계의 형성에 있어 문화전승적 요인이 작용함을 입증해 주는 예라 하겠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볼 때 아동양육의 구체적 수행은 그에 관한 신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양육에 관련된 신념체계는 文化的 脈絡 안에서 형성되므로 이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는 前 研究(愼良宰, 1994a, 1994b)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아동발달연구에 있어서는 문화적 적합성이 요구되며(Moghaddam, 1987), 文化 脈絡내에서 발달

현상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논의(Nsameng, 1992)와 그 이론적 경로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발달적 맥락을 구성하고 정의하고 있는 문화는 실상 정체된 것이 아니라 歷史 展開過程 안에서 力動的인 精巧化를 통해 전승되어, 발달의 맥락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Nsamennang, 1992). 따라서 아동양육의 신념체계 형성에 관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이해는 역사적 연구 방법으로서 그 적합성을 보증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 전통사회에 관한 기존 연구(孫直銖, 1981, 1993; 金玉姬, 1985; 柳點淑, 1987, 1989, 1991; 禹英姬, 1989; 池英淑, 1989; 李貞德·宋洵, 1993; 洪달아기, 1993; 愼良宰, 1994c)들은 대개 그 대상시기가 朝鮮時代に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전 시기로 소급하여 진행된 연구(愼良宰, 1994a, 1994b)는 매우 희소한 상태이다. 사실 高麗時代는 土着信仰의 氣風에 佛·儒의 思想이 竝進되던, 우리의 傳統文化基盤이 확립된 文化史的으로 중요한 시대(金哲坡, 1990; 許興植, 1986)이고 보면, 아동양육의 문화전승적 측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고려시대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행한 高麗時代에 관한 前研究(愼良宰, 1994a)는 그 분석 대상인 高麗史가 王朝史 중심의 기술이라는 文獻上的 制約으로 인하여, 아동양육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高麗時代의 文集을 분석하여 전 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文集에는 詩뿐만 아니라, 論·辯·序·跋·奏·議·書·說·勅令·碑文·誌·雜文 등¹⁾의 글이 실려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서술형식과 내용을 살펴볼때, 당시의

상세한 生活相을 파악하기에는 記述을 위주로 한 문헌류에 비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지닌 高麗時代 당시의 文集을 분석함으로써, 兒童期 概念化·兒童 日常生活相·養育行態의 측면에서 高麗時代의 兒童養育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兒童期 概念化는 양육의 對象에 관한 개념화를 일컫는데, 이는 구체적인 양육행위 결정의 始發이 되므로 중요하다 볼 수 있다. 특히 兒童 本性에 관한 概念, 理想的 特性에 관한 概念, 兒童發達에 관한 概念 등은 兒童期 概念化에서 중요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日常生活相은 미래에 수행할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화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상의 규명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본다. 특히 아동이 수행하는 家內課業(Goodnow, 1988b)과 놀이 활동(Bruner, 1976; Schwartzman, 1978)은 日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을 조명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시해 주리라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文集에 나타난 아동의 일상활동 특히 家內課業과 놀이를 중심으로 당시 아동의 日常生活相을 알아 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文集에 나타난 兒童養育遂行의 분석을 통해서 養育主體에 대한 期待나 養育活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高麗時代의 兒童期 概念化는 어떠한가? 둘째, 高麗時代의 兒童 日常生活相은 어떠한가? 셋째, 高麗時代의 兒童을 위한 養育遂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 研究方法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아동양육을 고찰하기 위해서 高麗時代의 文集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우선 문화적 맥락 이해에 있어서 문화 내부의 관점을 중요시함(金泳燦, 1982)과 동시에 실제로 행해진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우리 선조가 저술한 문헌으로 그 분석 대상 문헌을 제한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본 연구에서는 高麗時代 文集 가운데 고려가 蒙古干渉以前에 저술된 文集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에 破閑集,

1) 이들은 文體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주장하는 글을 論, 言行的是非 혹은 眞僞를 논하여 결단하는 글을 辯, 序文을 序, 跋文을 跋, 자신의 의견을 임금에게 아뢰는 글을 奏, 논 의하여 事宜를 정하는 글을 議, 의견을 上申하는 글을 書, 사물에 대한 義理를 풀어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형식의 글을 說,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를 勅令, 비석에 쓰인 글을 碑文, 史的인 記事를 기록한 것을 誌, 일정한 체계없이 여러가지 일을 적은 글을 雜文, 사실대로 적은 글을 記라 하는데, 이들로 부터 다양한 내용을 구해볼 수 있다.

東國李相國集, 破閑集을 분석하였다.

破閑集은 고려시대에 대표적인 문인의 한 사람인 李仁老(1152 毅宗6~1220 高宗7)에 의해서 엮어진 詩文集으로서, 詩畫·文談·記事와 自作 作品이 실려 있다. 上中下 3권으로 구성되어, 上卷에 24편, 中卷에 25편, 下卷에 33편과 李世黃(아들)의 跋文이 실려 있다. 慶州의 舊俗, 西京의 風物, 開京의 宮廷·寺刹, 기타 風物이 적혀 있어 高麗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東國李相國集은 고려시대의 詩豪로 알려진 李奎報(1168 毅宗22~1241 高宗28)가 평생에 지은 글들을 모아 아들 涵이 편간한 것으로, 全集 41권, 後集12권 등 총 53권으로 되어 있다. 全集에는 年譜·賦·詩·上梁文·頌·贊·銘·韻語·語錄·說·序·雜文·記·榜文·詔書·書狀·表箋·教書·批答·麻制·官誥·碑·誌·誄書·哀史·祭文·道場·醮疏·佛道疏·釋道疏 등이 수록되어 있고, 後集에는 詩·贊·序·記·雜記·問答·書·表·墓誌 등이 실려있으며, 卷末에는 誄書와 墓誌銘이 들어 있다. 補閑集은 고려시대의 문인으로 알려진 崔滋(1188 明宗18~1260 元宗1)가 李仁老의 破閑集을 보충하고자 저술한 문헌이다. 당시의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 흥미있는 史實, 浮屠, 부녀자들의 이야기 등도 수록한 것으로 고려시대의 사회 사정을 알아보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고 한다. 구성은 上中下 3권으로 되어 있어 上卷에는 52편, 中卷에는 46편, 下卷에는 49편이 수록되어 있어 있고 崔滋의 序文이 있다.

분석은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에서 영인한 高麗名賢集을 번역서를 참조하며 행했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 문헌안에서 아동이나 양육과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였는데, 예를 들면 嬰·幼·兒·童·孩·父·母 등이나 產·養·育·教 등이 있어 아동양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지는 사례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그 사례들을 양육 대상으로서 아동 자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 아동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 사례, 양육 주체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 그리고 실제 양육행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들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았다.

① 兒童期 概念化: 여기서는 아동의 生得的 性質에 관한 認識인 兒童本性觀, 아동에게 기대하는 바람직한

특성에 관한 認識인 理想的 特性, 아동기 단계 특성에 관한 認識인 兒童發達觀을 하위 내용으로 하여 양육 대상인 아동에 대한 개념화를 알아 보았다. ② 兒童 日常生活相: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가내과업과 놀이활동을 하위 내용으로 하여 일상모습을 분석하였다. ③ 兒童養育遂行: 여기서는 먼저 養育主體에 대한 役割期待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양육활동은 保護와 教育을 하위 차원으로 하였는데, 우선 保護次元은 아동의 심신유지에 필요한 支持活動으로서, 이것은 아동의 신체적·생리적 기본 욕구 충족과 건강유지를 위한 물질제공에 관한 物理的 側面과 아동에게 안전감, 소속감, 사랑, 자존감 등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心理的 側面의 두 하위 범주로 알아 보았다. 그리고 教育次元은 아동의 바람직한 형성을 위한 의도적 사회화 과정을 말하며, 이는 부모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家庭教育 側面과 외부에 의뢰하여 가정 외에서 행해지는 委託教育 側面 등 두 하위 범주로 알아 보았다.

II. 本 論

1. 兒童期 概念化

高麗時代 저술된 文集인 破閑集·東國李相國集·補閑集을 분석하여 알아본 兒童本性觀, 理想的 特性, 兒童發達觀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生得的 측면에 관한 兒童本性觀을 나타내는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夫鍾天所賦生而有之 不可以因物而遷 故仲尼之生 戲以俎豆²⁾ 文王之生 在師不勞 是皆因自然本不待於韋弦³⁾(破閑集 卷下 士子徐文遠)

② 此非刻勵習熟而爲之 其漸已見於乳臭中 固受之天者(東國李相國全集 卷第22 雜文 書司馬溫公

2) 俎豆는 祭器를 말한다.

3) 여기서의 韋弦은 韓非子 觀行에 '西門豹之性急 故佩韋以緩己 董安于之心緩 故佩弦以自急'라 하여 西門豹는 성급해서 항상 가죽끈을 차고 다니고, 董安于는 성질이 느리어 항상 활줄을 차고 다니면서 훈계를 삼았다는 故事에 의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文脈과 故事에 근거해 볼 때 韋弦을 후천적인 학습으로 보았다.

擊甕圖⁴⁾後)

- ③ 若以常品觀之 予少時怯乘馬 馬有駸駸其足者 面蒼然無生色 甚戰也 至今尚爾畏 騎駿足…又生二歲時 常喜執書冊 以手指點其字 而若將讀之 父母曰 此兒當業文者也 今果以進士出身 備小儒之數 由此觀之 君實之擊甕 天性也 其安國家濟蒼生 固亦受之天者 非熟習而爲之者 審矣 何謂兒時事 不足爲驗耶 非特此也 凡善惡勇怯 仁與不仁 孝與不孝 皆於兒時 可略見也 何獨司馬也耶(東國李相國全集 卷第22 雜文 書司馬溫公擊甕圖後)
- ④ 只爲伶才生得耳 不然齒齒慣知何(東國李相國後集 卷第8 古律詩 次韻李侍郎上晉 陽公女童詩呈令公)

①은 李仁老의 견해로서, 사람의 소질은 生來의 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경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 보았다. 그 예로 孔子와 文王을 들고 있다. 또한 ②는 李奎報의 견해로서, 司馬光의 어릴적 행동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있던 것으로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서 아동 본성이 先天의이라고 하는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李奎報는 같은 글에서 ③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견해를 보충하고 있다. 즉 孔子나 文王 등의 성인의 경우와 달리 보통사람인 李奎報 자신의 경우에도 보면, 어릴 적 말타기를 겁내던 것이 성인이 되어도 여전하며, 두 살 적에 서적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겨 했는데 지금은 선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④는 李奎報의 古律詩 중의 한 부분으로서 앞서의 견해들과 마찬가지로 영리한 재주는 天性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다.

아동본성에 관한 당시의 견해는 高麗史 研究(愼良宰, 1994a)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 列傳 分析에 보면 어릴 적 모습으로 후일을 예측하는 조목⁵⁾이나 胎夢을 통해서 장차를 예측하는 기록⁶⁾ 등은 아동의 先天的 측면을 중요시 하는 당시의 인식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文集에서도 또한 발

견되고 있다.

- ① 又生二歲時 常喜執書冊 以手指點其字 而若將讀之 父母曰 此兒當業文者也 今果以進士出身 備小儒之數 由此觀之(東國李相國全集 卷第22 雜文 書司馬溫公擊甕 圖後)
- ② 母夢梵僧至家請寄宿 因而有娠 及生(東國李相國全集 卷第35 碑銘·墓誌 故華藏寺住持 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碑銘)
- ③ 母裴氏 夢天門豁開 又夢被震者三 因而有娠(東國李相國全集 卷第35 碑銘·墓誌 曹溪山二世 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

①은 前述된 司馬溫公擊甕圖에 기록된 일부로서 李奎報가 2살 때 書冊을 가지고 놀면서 곧 읽을 듯이 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그가 문인이 될 것이라 했다는 내용에서 어릴적 모습으로 장차를 예측하는 당시의 아동관을 알 수 있다. 또한 ②와 ③는 靜覺國師와 眞覺國師의 墓誌이다. 이에 따르면 靜覺國師 모친은 僧侶가 寄宿하기를 청하는 꿈을 꾸고 임신을 하였다 하고, 眞覺國師 모친 裴氏는 天門이 활짝 열리는 꿈을 꾸고 또 벼락 맞는 꿈을 세번 꾸고서 임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胎夢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태어날 당시의 특성이 장차를 예견한다는 당시의 인식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기에 기대했던 이상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興王寺 見李內翰眉叟子 年可十二 通詩書 又能屬文 使之賦詩(東國李相國全集 卷第2)
- ② 小女面如雪 聰慧難具說 二齡已能言 圓於鸚鵡舌 三歲似恥人 遊不越門闌 今年方四齡 頗能學組綴 (東國李相國全集 卷第5 古律詩 悼小女)

- 6) 高麗史 卷88 列傳1 獻貞王后 黃甫氏
高麗史 卷88 列傳1 恭毅太后 任氏
高麗史 卷92 列傳5 崔凝
高麗史 卷99 列傳12 王世慶
高麗史 卷103 列傳16 金慶孫
高麗史 卷104 列傳17 金方慶
高麗史 卷105 列傳18 趙仁規
高麗史 卷108 列傳21 金怡
高麗史 卷110 列傳23 金台鉉
高麗史 卷117 列傳30 鄭夢周

4) 司馬溫公擊甕圖는 宋나라 司馬光이 어릴 적에 독을 깨서 아이를 구출한 고사를 그린 그림이다

5) 高麗史 卷108 列傳21 金怡
高麗史 卷109 列傳22 朴全之
高麗史 卷106 列傳19 尹諧
高麗史 卷108 列傳21 閔宗儒

- ③ 我有一愛子 其名曰三百 將與指李宗 來入驚姜夕
爾生骨角奇 眼爛面復皙(東國李相國全集 卷第6
古律詩 憶二兒)
- ④ 骨相峻爽 機神英邁 弱不好弄 常若有思念者(東
國李相國全集 卷第35 碑銘·墓誌 故華藏寺住持
王師定印大禪師追封靜覺國師碑銘)
- ⑤ 公生而穎異 自童年 已有老成體 人固已奇之矣
(東國李相國全集 卷第35 碑銘·墓誌 金紫光祿
大夫守司空尚書左僕射太子賓客田公墓誌銘)
- ⑥ 公幼聰敏穎悟 九歲能屬文 時號奇童(東國李相國
後集 卷終 誄書)

①에는 詩書에 통하고, 屬文에 능하다는 知的 측면이 나타나 있다. ②에는 知覺力(聰慧), 言語表現(能言), 女工學習(學組綴) 등의 知的 側面과, 羞恥心(恥)의 情意的 側面, 밝은 顔色(面如雪)의 신체적 측면이 나타나 있다. ③에는 신체적 측면으로 骨相(骨角奇)·眼光(眼爛)·顔色(面皙)을 중요시 함을 알 수 있다. ④에는 신체적 측면으로 骨相(峻爽)이, 지적 측면으로 理解力(機神英邁)이 중요시 됨이 나타나 있다. ⑤에는 지적 측면으로 問題解決力(老成體)이 나타나 있다. ⑥에는 知覺力(聰)·신속한 問題解決力(敏)·文章力(屬文) 등의 지적 속성이 나타나 있다.

한편 兒童期 段階特性에 대한 당시의 인식인 兒童發達觀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 ① 嬰兒氣秘三關固(東國李相國全集 卷第11 古律詩 明日尹君復見和次韻寄答)
- ② 人始之生 鴻荒模略 不責不華 猶花未萼 緬聰塗明 猶竅未鑿 孰闢其門 以挺厥鑰 魔爾來闕(東國李相國全集 卷第20 雜著 驅詩魔文)
- ③ 黏黏入口脆且柔 有如乳臭兒與稚(東國李相國全集 卷第13 古律詩 雲峯住老珪禪 師得早芽茶)
- ④ 色還孩嬰(東國李相國全集 卷第19 雜著 靈丹贊)
- ⑤ 兒童真好事 萑葦被其側(東國李相國全集 卷第18 古律詩 舍後開小池)
- ⑥ 兒童好事移此花(東國李相國後集 卷第5 古律詩 次韻李百全學士復和鷄冠花詩)

①에서 영아의 氣가 올곧은 것은 三關⁷⁾이 굳기

때문이라 하여 영아 단계를 神氣가 흠어지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概念化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②에도 이러한 개념화가 나타나 있는데, 사람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태고의 순박함이 있고 총명함이 단단히 머물러 있다고 하는 표현에서 영아 단계를 소-한 상태로 보는 인식을 볼 수 있다. 또한 ③에서는 茶 맛에 대해 칭찬하기를 연하고 부드러운 젓 뱀새 나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 영아 단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는 靈丹에 대한 贊으로서 그 약을 먹어 쾌차하는 모습을 안색이 어린 아이처럼 되었다고 하는 데에서 영아 단계를 완전한 상태로 보는 당시의 개념을 역시 발견할 수 있다.

한편 ⑤와 ⑥에서는 아이들은 일벌이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아동 특성에 대한 認識의 일면을 볼 수 있다.

2. 日常生活相

고려시대의 아동 일상생활상을 아동이 수행하는 가내과업과 놀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이 수행했던 가내과업을 나타내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時呼稚子酌烏程(東國李相國全集 卷第13 古律詩 草堂日暮值琴客置酒)
- ② 家醞遣兒蕪(東國李相國全集 卷第15 古律詩 皇甫書記見和壽量寺)
- ③ 呼兒壓得碧香浮(東國李相國後集 卷第1 古律詩 聞汁酒聲)
- ④ 呼兒灌藥苗(東國李相國全集 卷第15 古律詩 退公無一事)
- ⑤ 今朝命兒孫 掃地勤不少 雖至於庭階 刈去旅生草(東國李相國後集 卷第6 古律詩 屋燕)
- ⑥ 起倩兒童整紐襪(東國李相國全集 卷第17 古律詩 病中謝金學士仁鏡見訪)
- ⑦ 兒童且添炭 瓶醞聊可暖(東國李相國後集 卷第3 古律詩 三月猶寒)

7) 三關이란 신체 중 가장 중요한 세 곳으로 즉 귀·눈·입을 말한다. 淮南子에 ‘夫目妄視則淫 耳妄聽則惑 口妄言則亂 夫三關者 不可不慎守也’라 하여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삼가할 것을 말하고 있다.

- ⑧ 喚起兒童開宿火(補閑集 卷中 李眉午僧院茶磨云)
- ⑨ 今日子孫爭奠酒(東國李相國全集 卷第16 古律詩 端午郭外有感)
- ⑩ 子孫歲時雖拜塚(東國李相國後集 卷第3 古律詩 示子姪)

①, ②, ③에서는 손님 접대시에 곁에서 아이들이 심부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④와 ⑤에서는 약묘에 물주기, 청소, 뜰의 잡초제거 등 일부 가사노동에 아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⑥, ⑦, ⑧에는 병구완 시중, 화롯불 살리기 등 여러가지로 집안 어른이 시킨 간심부름이 나타나 있다. ⑨와 ⑩에서는 명절(端午)에 집안 어른께 술 올리기, 조상묘에 절하기 등 儀禮에 참여하는 아동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한편 당시의 아동들이 일상생활에 즐겼던 놀이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得鏡學母粧(東國李相國全集 卷第6 古律詩 憶二兒)
- ② 僕爲兒時 登京城北天磨山 探奇摘異無遺(破閑集 卷下 僕爲兒時登京城北天磨山)
- ③ 頃刻庭前波激瀾 兒童聚葉學浮舟(東國李相國全集 卷第3 古律詩 草堂詠雨)
- ④ 嬌娘撲蝶翩翩落 稚子黏蟬軋軋鳴(東國李相國後集 卷第1 古律詩 草堂即事)
- ⑤ 不教兒擅取 思與客同餐(東國李相國全集 卷第7 古律詩 謝梁校勘國峻送櫻桃)
- ⑥ 我家難制衆頑童 綠子生時已摘空(東國李相國全集 卷第14 古律詩 謝崔秀才惠林檎甘瓜)
- ⑦ 兒童黏以芋 遺片隨風颭(東國李相國全集 卷第14 古律詩 蛛網)
- ⑧ 兒童好事移此花(東國李相國後集 卷第5 古律詩 次韻李百全學士復和鷄冠花詩)
- ⑨ 奈何兒童輩 終日弄團圓 不唯弄之耳 齒嚼未遽捐(東國李相國後集 卷第8 古律詩 見兒童弄圜有作)
- ⑩ 遊兒手冷團還擲(東國李相國後集 卷第8 古律詩 對春雪偶吟得長句二十六韻)
- ⑪ 陷脚馳狂稚子驕(東國李相國後集 卷第8 古律詩 次韻李起居郎見和雪詩)
- ⑫ 狂童戲裏拳貪掬(東國李相國後集 卷第9 古律

詩 復次韻李侍郎重和雪詩廻文)

- ⑬ 兒童吹却當簫茄(東國李相國後集 卷第4 古律詩 家圃六詠)
- ⑭ 兒子輩鑿土作廬 其形如墳(東國李相國全集 卷第21 說序 壞土室說)
- ⑮ 隣家童子渾多事 喜向長空送紙鳶(東國李相國後集 卷第1 古律詩 七月三日詠風)
- ⑯ 郎兒壯合擎鷹鷂⁸⁾(東國李相國後集 卷第9 古律詩 復次韻李侍郎重和雪詩廻文)
- ⑰ 靜坐欲澄廬 兒孫開亂侵(東國李相國後集 卷第2 古律詩 屏兒孫獨坐)
- ⑱ 歸途應費兒童手 拍笑山公倒載廻(東國李相國全集 卷第2 古律詩 同文長老訪尹學錄世儒家)
- ⑲ 忘冠又失帶孫兒等笑之(東國李相國後集 卷第5 古律詩 正月五日謝李平章見訪)

①에서는 거울을 대하고 엄마의 화장하는 모습을 흉내내는 것, ②에서 ⑫까지의 예에서는 자연물을 가지고 활발하게 노는 아동의 모습이 발견된다. 즉 ②에서 산에 올라 기이한 걸 찾는 것, ③에서 뜰에 물결이 출렁일 때, 잎을 모아 배 띄우는 시늉을 하는 것, ④에서 나비 뒤쫓거나, 매미 잡는 모습, ⑤와 ⑥에서 익지않은 과실을 따는 것, ⑦에서 장대로 거미줄을 거두는 모습, ⑧에서 꽃을 심는 것, ⑨에서 탕자를 가지고 노는 모습, ⑩, ⑪, ⑫에서는 눈놀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사물을 제작하거나 마련하여 즐기는 활동이 ⑬, ⑭, ⑮, ⑯에서 발견된다. 즉 ⑬에서는 갈잎피리를 만들어 놀기, ⑭에서는 흙을 파서 토실 만들기, ⑮에서 紙鳶 날리기, ⑯에서는 사냥을 위한 송골매나 새매를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밖에 ⑰, ⑱, ⑲는 당시 아동이 활발하고 표현이 자유스러웠음을 알게 해준다. 즉 ⑰에서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노는 모습, ⑱에서는

8) 鷹은 매과에 속하는 猛鳥의 하나로, 村家 부근에 급강하하여 작은 새, 병아리 등의 조류를 잡아 먹는다. 사냥용으로 사육하기도 하며, 참매, 角鷹, 송골매, 海東靑이라고 불리운다. 鷂는 새매의 압컷을 말하는데, 새매는 매과에 속하는 새로 텃새 또는 떠돌이새인데 숲속에서 단독으로 살며 작은 새나 병아리, 쥐 등을 잡아 먹는다. 길들여서 작은 새를 잡는데 쓴다.

슬취한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박수치며 웃어대는 아이들 모습, ⑩에서 어른이 관쓰기를 잊은 데다 또 허리띠도 잃었을 때에 웃어대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3. 兒童養育遂行

高麗時代의 兒童養育遂行에 관해서는 역할주체에 대한 역할기대, 보호차원의 양육활동, 그리고 교육차원에서 양육활동을 알아 보았다.

1) 養育主體에 대한 役割期待

주된 양육주체인 부모에 대하여 기대된 역할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妻兒莫嗔寒 吾欲東伐若木燒爲炭 灸遍吾家及四海 臘月長流汗(東國李相國全集 卷第2 古律詩 苦寒吟)
 - ② 今年我家兒 必定落於內 不有菩薩慈 此厄誰能解 (東國李相國後集 卷第7 古律詩 戲贈春州守姜壯元乞炭)
 - ③ 漏屋百難妨 持傘夜不寢 妻兒苦無知 怨咨聲不已 (東國李相國全集 卷第11 古律詩 九月苦雨)
 - ④ 稚子呼蠶纒 山妻欠幕羅(東國李相國全集 卷第5 古律詩 次韻吳東閣世文呈詒院諸學士三百韻詩)
 - ⑤ 妻悲難難解 兒飢哭不休 三年如未去 白髮欲渾頭 (東國李相國全集 卷第9 古律詩 莫導爲州樂)
 - ⑥ 三冬織紵功 一旦棄如遺 尚未救大歎 立竹羅飢兒 (東國李相國全集 卷第12 古律詩 典衣有感示崔君宗藩)
 - ⑦ 要當婚嫁畢 始脫籠中因(東國李相國全集 卷第5 古律詩 偶遊山中書壁上)
 - ⑧ 立竹眞可厭(東國李相國全集 卷第8 古律詩 悼朴生兒兼書夢中事)
 - ⑨ 有蘊卽來訴 如兒索母乳(東國李相國全集 卷第15 古律詩 太守示父老)
 - ⑩ 若嬰兒之失母慈(東國李相國全集 卷第20 雜著 異相者對)
 - ⑪ 雖摩撫有加 而如視孩兒(東國李相國全集 卷第40 釋道疏祭祝 西京行天變祈禳毬庭醮禮文 三獻青詞)
 - ⑫ 路上棄兒(東國李相國全集 卷第1 古律詩)
- ①부터 ⑧에서 父性에 기대한 역할 내용을 알 수

있다. ①에서 ⑥까지는 자녀에 대한 물리적 보호의 역할기대가 나타나 있으며, ⑦와 ⑧은 부성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먼저 ①, ②, ③에서는 물질적 보호에서 안락한 주거에 대한 부성의 책임이 나타나 있다. 즉 ①에는 솥을 만들어 따뜻하게 해주 고자 하는 소망이, ②에는 솥을 빌면서, 아이들이 추 위의 고통에 빠지게 되어 菩薩의 慈悲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③에서는 비로 인해 집이 새는 것에 대해 처자식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부성으로서의 책임감을 볼 수 있다. 또한 ④, ⑤, ⑥은 식생활에 대한 부성의 책임이 나타나 있다. 즉 ④에서는 어린 자식이 거친 쌀이 나마 달라하고 있고, ⑤에서는 어린 자식의 배고파 나온 울음에 머리털 모두 백발이 될거라고 표현하고 있고, ⑥에서는 겨울에 애써 지은 옷을 하루아침에 전당잡히고도 굶주림을 못면하고 허기진 아이 죽 늘어섰다는 표현에서 물질적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알 수 있다. 또한 ⑦에서는 자녀를 결혼시킨 뒤에야 새장에 갇힌 몸이 벗어나게 된다고, ⑧에서는 친구(朴生)의 어린 아들이 죽은 것을 위로하면서 자식 많은게 참으로 귀찮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로부터 부성역할책임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또한 ⑨, ⑩에서는 母性役割期待를 알 수 있다. 즉 ⑨의 억울하면 곧 와서 호소하여 어린 아이 어미 젖 찾듯이 하라는 표현과, ⑩의 마치 젖먹이가 慈母를 잃은 것처럼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에서, 영아 단계의 아동에 대해 모성 양육의 필연성이 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⑪와 ⑫에서 아동양육 책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데, 우선 ⑪의 힘껏 달래어 위로함(撫摩)을 어린이에 돌보는 것과 같이 하였다는 표현에서 어린이에 돌보기에 대단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개념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⑫은 길에 버린 어린 아이를 보고 그것을 警戒하는 시로서, 여기에서 양육책임을 遺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알 수 있다.

한편 文集에는 부성과 모성 이외의 주체가 兒童養育을 수행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高麗史 研究(愼良宰, 1994a)에서도 논의했듯이 당시의 가족이 조선시대와는 달리 부계제이면서 상당히 쌍계적이어서 근친자인 가족성원의 범위에 가장의 배우자 방계친, 차남이하의 부부, 기혼여성과 그 배우자를 포함

시키는 특성(崔在錫, 1983)이 반영된 바로 여겨진다. 그 예로 高麗史에 祖父, 祖母, 姨母夫, 妹夫, 妻父母 등이 양육을 수행했다는 기록⁹⁾이 있다. 다음의 기록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 ① 孝子早孤 無我敢教 及來于公 親灸訓勵 能舊爲人 公助其養…今則娶妻 男歸于女 凡已所須 婦家是 據 姑舅之恩 有同怙恃(東國李相國全集 卷第37 哀詞·祭文 祭外舅大府卿晉公文)
- ② 早喪考妣 無所依歸 有大叔華嚴僧統 寡一 撫養之 常不離左右 訓誨勤勤(破閑集跋)

①은 李奎報가 지은 丈人에 대한 祭文의 한 대목으로, 일찍 부모를 잃어 자신을 가르칠 이가 없었는데 장인으로 부터 직접 훈계와 격려를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풍속에 대하여 장가갈 때 남자가 妻家로 가게 되어 필요한 것을 다 처가에 의거하므로 丈人과 丈母의 은혜가 부모와 같다는 표현에서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②는 李仁老에 관한 기록으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자 大叔인 華嚴僧統 寡一이 양육하였다고 되어 있다. 즉 이와 같이 분석 文集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父母의 兄弟나 妻父母 역시 양육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保護次元

양육의 保護次元은 아동의 心身維持에 필요한 支持活動으로, 이를 연구방법에서 前述한 物理的 側面과 心理的 側面의 두 범주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먼저 物理的 側面에 관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此神物護公於襁褓中也(東國李相國文集 卷終 文順公 墓誌銘)
- ② 褓茅土於襁褓中(破閑集 卷下 今司空某)
- ③ 味如飴蜜還如乳 解止兒啼作笑娛(東國李相國全集 卷第5 古律詩 野人送紅柿)
- ④ 癡兒始見訝黃金 弄久都無咀嚼心(東國李相國全集 卷第14 古律詩 和友人詠橘)
- ⑤ 不但供來客 偏工止哭兒(東國李相國全集 卷第16 古律詩 栗詩)

9) 高麗史 卷103 列傳17 金方慶
高麗史 卷88 列傳1 神靜王太后 黃甫氏
高麗史 卷108 列傳21 閔宗儒
高麗史 卷112 列傳25 李公遂

- ⑥ 稚子謾窺餐(東國李相國後集 卷第7 古律詩 次韻 李侍郎見和桃梨詩)
- ⑦ 甘宜稚子舌(東國李相國後集 卷第7 古律詩 次韻 河郎中復見和親訪贈之)
- ⑧ 年年肌炭色如磬 喜及寒兒與凍妻(東國李相國後集 卷第1 古律詩 走筆謝大王寺文師送炭)

①와 ②의 표현에서 영아기에 襁褓를 사용했다는 의생활 일부를 알 수 있다. 또한 3)에서 7)까지의 표현으로 부터 식생활 일부인 아동의 嗜好食品이 파악된다. ③에서는 紅柿가 맛이 달아 우는 아이도 웃길 수 있다고 했고, ④에서는 橘을 가지고 노느라고 먹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고, ⑤에서는 밤은 아이 울음도 그치게 한다고 하였고, ⑥에서는 복숭아와 배를 어린 아들이 먹고 싶어 넘본다고 표현했고, ⑦에서는 紅柿의 단 맛이 아이들 입에 맞다고 했다. ⑧은 숯보내준 것을 고마워하면서 지은 시로, 해마다 검은 숯을 보내주어 추위에 떨던 처자식 기뻐했다는 표현에서 당시의 주거생활을 알 수 있다. 즉 高麗時代 주택은 온돌과 화로에 의해서 난방을 하였다는 연구 결과(朱南哲, 1980)로 볼때 숯은 당시의 중요한 생활용품이었을 것이다.

한편 心理的 側面에서의 兒童 保護 내용은 다음 자료를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다.

- ① 我有一弱女 已識呼爺孃 牽衣戲我膝(東國李相國全集 卷第6 古律詩 憶二兒)
- ② 兒戲牽衣聊足樂(東國李相國全集 卷第10 古律詩 杜門)
- ③ 獨喜童烏輩 踴躍繞我床(東國李相國全集 卷第10 古律詩 又次新賃草屋詩韻)
- ④ 與兒輩行園中(東國李相國全集 卷第11 古律詩)
- ⑤ 兒牽我依 我撫兒項 熙熙怡怡(東國李相國全集 卷第23 記 草堂理小園記)
- ⑥ 予昔與妻 提挈絃幼 女戲我膝 男哭母舛(東國李相國全集 卷第37 哀詞·祭文 祭李紫微諒文)
- ⑦ 磊落三學士 作爾湯餅客(東國李相國全集 卷第6 古律詩 憶二兒)
- ⑧ 何煩弓鞬勸求子 已呪桃花屢磯兒(補閑集 卷上 趙文公與劉待制)

①부터 ⑥까지에서는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 놀아

주거나 즐거운 여가를 보내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①와 ⑥에는 딸아이가 옷을 끌면서 아버지 무릎에서 놀고 있는 정경이 나타나 있고, ②에서는 아이들이 놀자고 옷깃 당기는 것을 樂이라 표현하고 있고, ③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平床에 둘러앉아 여가를 보내는 것을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④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동산을 거닌 것을 기록하고 있고, ⑤에서는 아이는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자신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며 유쾌한 기분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시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러한 인식이나 실제 수행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로 부터 고려시대 당시에 아버지가 놀이나 여가를 함께 하여 아동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육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그밖에 ⑦와 ⑧은 아동 보호를 위해서 행한 당시의 또다른 양육행태이다. ⑦은 아들에 관한 시로서, 고명한 세 學士가 너의 湯餅¹⁰⁾의 손님이 되었다고 표현하면서 註를 兒生七日 吳郎中世文 鄭員外文甲 俞東閣瑞廷 諸作詩相賀라고 하여 아이를 낳은 지 칠 일만에 吳世文, 鄭文甲, 俞瑞廷이 와서 방문하고 시를 지어 賀禮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 아이 출생에 대한 賀禮 모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⑧은 趙文正公이 孫男을 얻고서 지은 시로서, 빌면서 복숭아꽃을 여러 번 아기 얼굴에 발랐다고 되어 있고, 註에 兒生用桃花洗面 呪曰取紅花取白雪 與兒洗面作光澤라고 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복숭아꽃을 가지고 얼굴을 씻으면서 빌기를 붉은꽃 가져라 흰눈을 가져라하면서 아이의 낫을 씻어 주면 광택이 난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풍속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복숭아 나무가지가 귀신을 물리치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과 연관이 있다(김용덕, 1994: 165)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양육행태라는 측면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담당자도 심리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의 활동이라 볼 수 있다.

3) 教育次元

고려시대에 아동용 의한 교육활동을 家庭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행해진 행태와 그밖의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내에서의 교육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로 부터 추정해 볼 수 있다.

- ① 金玉滿籩隨手散 不如清白付兒孫(東國李相國後集 卷第6 古律詩 囑諸子)
- ② 有二子常戒之曰 士以勢力進 鮮克有終 以文行達 乃爾有慶 吾幸以文行顯 哲以清慎終于世 乃作訓子孫文傳之(補閑集 卷上 崔文憲公冲)
- ③ 有二子在輦下 公以詩訓之曰 家傳清白無餘物 只有經書萬卷存 恣汝分將勤讀閱 立身行道使君尊(補閑集 卷上 崔譽肅公爽)
- ④ 小兒方三歲 向我能再拜 老夫亦人情 未免心中愛(東國李相國後集 卷第8 古律詩 外孫孩兒學拜)

①에서는 자식에게 청백한 행실을 당부하고 있고, ②에서는 崔冲이 두 아들에게 文行과 清慎을 훈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의 내용은 文肅公 崔惟清이 훈계한 기록인데, 清白, 經書를 부지런히 읽을 것, 立身行道 등의 교육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④는 세살난 외손자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으로, 恭敬의 행동은 중요한 교육내용으로서, 어린 나이부터 이를 교육시켰음을 알 수 있다.

上述된 경우이외에 가정 외부에서의 교육에 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幼時寓僧舍讀書(破閑集 卷中 太白山人戒膺)
- ② 歸隱公州山莊 郡守遣其子受業有年(破閑集 卷下 白雲子神駿)
- ③ 僕八九歲 隨一老儒習讀書(破閑集 卷下 僕八九歲)
- ④ 申君年八十餘 常集學子教授(東國李相國全集 卷第16 古律詩 謝申丈教授愚息澄)
- ⑤ 十二徒冠童 每夏會山林肄業 及秋而罷 多寓龍興 歸法兩寺(補閑集 卷中 十二徒冠童)

①에는 太白山人戒膺이 어렸을 때 절에 들어가서

10) 湯餅은 밀가루로 만들어 삶은 것으로, 여기서는 湯餅會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이가 출생하여 3일째 되는 날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湯餅을 먹으며 慶賀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洗三이라고도 한다.

공부했다는 기록이, ②에는 白雲子 神駿이 公州山莊으로 가서 숨어 사는데 군수가 그 아들을 보내어 수업하게 했다는 기록이, ③에는 李仁老가 팔구세 경에 한 늙은 선비를 따라 글을 읽었다는 기록이, ④에서는 申大丈이 나이 80인데 항상 학생을 모아 가르쳤다는 기록이, ⑤에서는 十二徒의 冠童들이 매년 여름이면 산림에 모여서 학업을 익히다가 가을이 되면 파렸는데 龍興寺와 歸法寺 두 절에 많이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부터 학업과 관련된 교육은 선생을 모시거나, 書堂, 寺刹에서 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高麗史에서도 나타났다¹¹⁾.

III. 結 論

본 연구는 韓國 兒童養育 傳統을 糾明하기 위해 高麗時代의 文集에 나타난 兒童養育을 알아보고자, 일차로 破閑集, 東國李相國集, 補閑集을 분석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兒童期 概念化, 兒童 日常生活相, 兒童養育遂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대상인 아동에 대한 高麗時代의 인식을 보면, 아동의 소질이나 품성등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라 보았고, 이후의 모습도 이러한 생득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이 약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知的 側面에서는 知覺力, 問題解決力, 理解力, 文章力, 言語表現, 女工學習 등을, 情意的 側面에서는 羞恥心이, 身體的 側面에서는 뛰어난 骨相, 밝은 顔色, 형형한 眼光 등을 이상적인 특성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文集에 나타난 兒童發達觀으로는 영아 단계를 氣가 완전한 상태로 概念化 하였다는 것과 아동은 일 벌이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이다.

둘째, 文集에서 발견된 아동의 日常課業은 손님방 문시 곁에서 심부름, 청소·물주기·뜯의 잡초제거와 같은 가사노동, 집안어른의 곁에서 잔심부름, 儀禮 참여 등인데, 이러한 일상생활은 성인 생활과 분리·단절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찰이나 참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차 성인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

능을 체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동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놀이로는 성인행동 모방, 자연물과의 친화, 도구제작과 이를 활용한 놀이 등이 나타났고, 동시에 활달하고 표현이 자유스러운 아동의 일상 모습이 나타났다.

세째, 養育主體에 대한 役割期待 분석에서는 父性의 물리적 보호 책임, 母性과 영아양육의 필연성, 그리고 당시의 강한 양육책임의식이 나타났다. 保護次元에서 행해진 양육활동의 物理的 側面은 의생활로는 영아의 襁褓 사용, 식생활은 홍시·굴·밤·복숭아·배 등의 기호 식품이 제공되었고, 주생활은 솥을 사용한 난방이 행해졌다. 心理的 側面으로는 아동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등 아동의 保護活動에 父性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出生직후의 賀禮모임이나, 복숭아꽃으로 얼굴을 씻어주는 儀禮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영아와 그 주변 양육자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보호하는 의의를 지녔다고 보여진다. 教育次元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清白한 행실, 經書工夫, 立身行道, 恭敬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했으며, 학업과 관련된 교육은 선생을 모시거나, 書堂, 寺刹에서 주로 행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여타 高麗時代 文集에 대한 분석과 아우름으로써 그 신빙성 여부를 꾸준히 논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悠久한 우리 文化的 傳統에 대해 일반의 몇몇 상식적인 理論으로는 그 전모를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바와 마찬가지로 高麗時代의 兒童養育을 중심으로한 제반 觀念 및 樣相도 또한, 그 전모를 究明해내기까지는 추후로 文集이외에도 여타 文獻 및 資料와의 비교 연구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破閑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高麗名賢集 影印本(柳在泳 譯註. 서울: 일지사).
- 2) 東國李相國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高麗名賢集 影印本(민족문화추진위원회 고전국역총서, 서울: 민문고).
- 3) 補閑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高麗名賢集 影印本(柳在泳 譯註. 서울: 일지사).

11) 高麗史 卷97 列傳10 李永
高麗史 卷108 列傳21 閔宗儒

- 4) 金泳燦(1982). 生活·文化·教育. 서울: 교육과학사.
- 5) 金玉姬(1985). 朝鮮朝社會의 女四書를 중심한 女性敎訓書의 內容分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6) 金용덕(1994). 韓國風俗史. 서울: 밀알.
- 7) 金哲堧(1990). 韓國文化史論. 서울: 서울대출판부.
- 8) 孫直銖(1981). 朝鮮時代 女性敎育研究. 서울: 성균관 대학교출판부.
- 9) _____(1993). 士小節에 나타난 傳統 家庭敎育. 한국 정신문화원 연구논총 93-18, 韓國인의 전통가정敎育 사상, 47-130.
- 10) 愼良宰(1994a). 高麗時代 兒童養育 研究-高麗史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 149-162.
- 11) _____(1994b).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나타난 兒童期 考察. 대한가정학회지 32, 125-134.
- 12) _____(1994c). 朝鮮時代 風俗志에 나타난 兒童養育 考察.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219-228.
- 13) 禹英姬(1989). 朝鮮時代 敎訓書를 통해 본 子女養育 - 童蒙先習, 擊蒙要訣, 士小節, 顧庵家訓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14) 柳點淑(1987). 士小節에 나타난 兒童敎育法 고찰. 대 한가정학회지 25, 141-152.
- 15) _____(1991). 朝鮮後期 童蒙敎材의 내용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16) _____(1992). 朝鮮時代 童蒙敎育의 方法的 原理. 아 동학회 13, 113-128.
- 17) 李貞德·宋 洵(1993). 小學에 나타난 童蒙期 禮節敎 育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57-168. -
- 18) 朱南哲(1980). 韓國住宅建築. 서울: 일지사.
- 19) 池英淑(1989). 茶山의 家庭敎育에 대한 現代的 고찰. 성대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19, 275-295.
- 20) 崔在錫(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서울: 일지사.
- 21) 許興植(1986).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일조각.
- 22) 洪달아기(1994). 聖學輯要에 나타난 子女敎育觀. 한 국가정관리학회 12, 200-208.
- 23) Bruner, J.S.(1976). Nature and uses of immaturity. In J.S. Bruner, A. Jolly & K. Sylva(eds.) Play-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N.Y.: Basic Books, Inc.
- 24) Goodnow, J.(1982). Everyday ideas about cognitive development. In J.P.Forgas, Social cognition, London: Academic Press Inc.
- 25) _____(1985). Change and variation in ideas about childhood and parenting. In I.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26) _____(1988a).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27) _____(1988b). Children's household work: its nature and fun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3, 5-26.
- 28) Miller, S.A.(1988). Parents'belief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29) Moghaddam, F.M.(1987). Psychology in the three worlds. *American Psychologist* 42, 912-920.
- 30) Nsamenang, A.B.(1992). Human development in cultural context: A third world perspective, N.Y.: Sage Publication.
- 31) Schwartzman, H.B.(1978). Transformations: the anthropology of children's play. N.Y.: Plenum Press.